

후기 아동기의 종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 연구

박 지 은 설 경 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최근 국내외에서 종교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동기의 종교성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문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후기 아동기인 초등학교 5, 6학년(평균 연령=11.19) 631명을 대상으로 종교성과 친사회성 그리고 공격성과의 관계를 연구했고 이들 변인 모두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 관계의 차이에 관한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남, 여 아동 모두 종교성은 아동의 친사회성과 정적, 친사회성은 공격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성과 공격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종교성, 친사회성,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 검증 결과 초등학생의 종교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이 매개하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들 관계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에 따른 구조모형의 성차는 없었지만, 남, 여 아동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친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관한 의의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에 제시되었다.

주요어: 종교성, 친사회성, 공격성, 초등학생, 성차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인 후기 아동기 혹은 초기 청소년기는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또는 또래들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Nansel, Overpeck, Pilla, Ruan, Simons-Morton, & Scheidt, 2001). 실제로 최근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초등학교 4-6학년 사이에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아동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다른 어떤 심리적 특성보다 발달단계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Broidy et al., 2003) 청소년기에는 학교폭력이나 비행, 그리고 성인기에는 더 심각한 폭력이나 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Vaillancourt, Brendgen, Boivin, & Tremblay, 2003) 조기 개입을 위해 아동기의 공격성 관련 변인에 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공격성은 공격 유발대상에게 신체적, 언어적으

로 해를 가하는 외현적 공격성과 의도적인 속임수로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된다(Crick, 1996). 공격성은 피해 아동뿐 아니라 가해 아동의 행동문제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국내 메타분석 논문에 의하면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모두 자기통제력, 친사회성, 긍정적 또래 관계의 적응적 변인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충동성, 우울, 불안, 비행, 또래 괴롭힘의 부적응적 변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미정, 2011).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 아동 역시 소외,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적응문제를 겪고 있었고(Crick & Nelson, 2002), 심한 경우 자살을 통째서까지 괴롭힘의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였다고 보고했다(Owens, Slee, & Shute, 2000).

아동 후기부터 초기 청소년기까지는 신체적, 환경적 변화와 함께 공격성 발달에도 변화가 생기는 데(Moffitt, 1993) 특별히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한 비신체적 형태의 공격성은 언어능력 및 사회인지 능력이 발달된 아동후기와 중학교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riker-Jaffe, Foshee, Ernett, & Suchindran., 2008; 서미정, 2012). 반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적응적인 공격성과 상반되는 특성인 친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증가하지만(Eisenberg & Fabes, 1998)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10-15세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Nantel-Vivier et al., 2009). 본 연구는 공격성은 점차 높아지고 친사회적 행동이 낮아지는 시기인 후기 아동기의 초등학교 5, 6학년층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공격성과는 부적 그리고 친사회성과는 정적 관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성 변인에 관해 알아보고자 했다.

종교성(religiosity)은 종교와 관련하여 개인의 믿음, 태도, 종교의식, 개인적 경험과 같은 다면적 차원 개념이다(King & Boyatzis, 2004). 종교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은 종교적 믿음, 태도, 종교 집회 및 종교관련 활동 참석 빈도, 그리고 종교의 중요성 등을 연구해 왔는데 종교성의 다면적 측면 중 어떤 측면을 측정하였느냐에 따라 정신건강 변인과의 관련성이 달라진다(Smith, McCullough, & Poll, 2003; Yonker, Schnabelrauch, & DeHaan, 2012). 예를 들면,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외재적 종교정향성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과는 달리 종교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내재적 종교정향성은 정신건강과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종교정향성과 함께 종교집회 및 종교활동 참여빈도 역시 정신건강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밝혀졌다(설경옥, 박지은, 박선영, 2012). 특별히 아동, 청소년의 종교성과 심리적 변인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원은 종교집회 및 종교활동 참여빈도였고, 종교에 관한 내재적 동기와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도 주요한 종교성의 차원으로 연구되어 왔다(Wong, Rew, & Slaikeu, 2006; Yonker et al., 2012).

인간의 적응과 관련하여 종교 및 영적 차원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고(Frankl, 1967), Banks(1980)는 종교 및 영적 차원을 인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차원을 연합시키는 핵심으로 보았다. 청소년의 발달과 행동에 있어서도 종교의 역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긍정적 발달을 이해하는데 종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Yonker, et al., 2012). 그러나 국내의 종교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

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아동의 발달과 사회·정서적인 안녕을 이해하는데 종교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자들의 제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동의 종교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Benson, Roehlkepartain, & Rude, 2003). 특히 국내에서는 아동의 종교성과 심리학적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아직 없고, 손병덕(2009)이 초등학교 5, 6학년 일반가정과 이혼 및 재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를 비교한 연구에서 아동의 종교 활동 변인을 포함한 논문이 유일하다. 손병덕(2009)의 연구에서 아동의 빈번한 종교 활동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종교 기관의 참여 빈도가 높은 일반아동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또래 지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수준의 또래 지지는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손병덕(2009)의 연구가 아동의 종교성을 종교기관 참여의 단일 변인으로 측정하는 것에 한계는 있으나 아동의 발달에 종교성 변인을 처음으로 포함한 국내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의 연구 결과에서 아동의 종교성은 행동문제에 직접적 관련은 없었고, 또래지지를 매개로 종교성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종교성과 행동문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일관되게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와 다른데(Yonker et al., 2012) 이는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종교성과 심리사회적 적응 변인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고, 아동기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종교성과 정신건강과의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설경옥 등, 2012).

그동안 아동기의 종교성 연구가 미비했던 이유 중 하나로 측정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성인의 경

우에도 1980년대까지 이루어진 초기의 종교성 연구를 살펴보면 종교성을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하나인 종교의 유, 무 혹은 특정 종교에 관한 개인의 멤버십으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종교성을 다차원적 심리구인으로 타당하게 정의내리고 측정하는데 실패한 초기 연구들에서 종교성이 심리적 적응과 같은 긍정적인 정신건강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정신질환과 같은 부정적 정신건강과는 관계가 없거나 모호하게 나타났는데(Bergin, 1983), 1990년대 후반부터 종교성의 다차원적 구인으로서의 타당도 및 측정의 방법론적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Powell, Shahabi, & Thoresen, 2003). 그리하여 최근 20여년 간 종교성과 영성이 믿음과 태도, 행동과 구조, 개인적인 경험, 감정적인 현상, 의식과 인식의 다양한 수준, 성격과 같이 다면적 차원의 구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합의하고 종교성과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enson et al., 2003; King & Boyatzis, 2004). 특별히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발달단계의 특성상 영적 경험과 같은 추상적인 종교성의 구인보다 종교 집회 참석 빈도, 종교 활동 빈도, 그리고 종교 활동에 관한 흥미 및 관심도와 같은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변인들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Yonker et al., 2012; Wong et al., 2006). 실제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과 공격성 간에 실존적 영적안녕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성경, 홍세희, 최보윤(2004)의 연구와 달리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이 실존적 영성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채유경, 2005). 아동의 종교성 연구에 있어 인지발달과 같은 발달의 단계적 특징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연구들은 신에 관한 관념과 같은 아동의 종교성이 전통적인 인지발달

이론과는 달리 초기 아동기부터 발달되고(Lane, Wellman, & Evans, 2012) 부모의 종교성이 아동에게 일방향적으로 전이(transmission) 되기보다 서로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며 발달(transaction)한다고 제시한다(Seol & Lee, 2012). 예를 들어, 만 3-12세 아동과 그들의 부모의 종교에 관한 대화를 2주간 다이어리에 기록하게 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이 부모보다 더 주도적으로 종교에 관한 대화(예: 신, 기도, 믿음)를 시작하고 이끌었으며 아동의 종교발달에 부모가 아동에게 일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아동도 부모의 종교성 발달에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Boyatzis & Janicki, 2003). 이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동의 종교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모와 아이의 종교관이 항상 일치하지 않고 행동적인 결과에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기에(Boyatzis, 2005) 아동과 부모의 종교성은 독립적으로 연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종교성 발달에 관한 도전과 측정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동기의 종교성 연구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종교성 발달을 통해 친사회성 행동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친사회성 행동발달은 행동문제와 같은 다른 발달 영역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종교들은 친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아동의 친사회적 가치의 사회화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Mattis, Jagers, Hatcher, Lawhon, Murphy, & Murray, 2000). 아동기의 친사회성은 아동이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 및 학교 적응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Maccoby, 1980). 또한 친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Crick, 1996; McMahon & Watts, 2002; 하영희, Carolyn, 2004).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수의 횡단 및 종단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종교성이 친사회성과 정적 연관성이 있고, 종교성이 비행과 공격적인 행동을 포함한 반사회적 행동이나 약물이나 알코올사용을 포함한 위험행동과 부적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Yonker et al., 2012 참조). 최근에는 청소년의 종교성과 친사회성 및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Seol과 Lee(2012)의 미국 내 한인교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또래의 종교적 영향력이 청소년의 종교정체성을 매개로 친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rdy와 동료들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도덕정체성이 종교성과 공감능력의 정적 관계, 그리고 종교성과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부적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Hardy, Walker, Rackham, & Olson, 2012). 이렇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교성과 공격성, 그리고 종교성과 친사회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격성의 증가와 친사회성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후기 아동기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교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격성과 친사회성의 발달적 변화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후기 아동기에서 공격성 감소와 친사회성 증가와 상관이 있는 종교성 변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다.

종교성, 친사회성과 공격성의 연구 모두에서 성차는 매우 중요한 연구 변인이다. 먼저 종교성에 관한 성차를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여성의 종교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이 빈번히 보고되어 왔다 (Smith et al., 2003).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종교성에 관한 성차를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Yonker et al., 2012), 일부 논문에서 여자 청소년의 종교성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Regnerus & Uecker, 2006). 친사회성의 경우, 성인의 친사회성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사회적 역할에 적합한 친사회적 행동을 할 뿐 성차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Eagly, 2009), 아동·청소년기 친사회성의 성차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유연경, 유미숙, 2012)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공격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더 높고, 관계적 공격성은 여아가 더 높거나 성차가 없는 것으로(Crick & Grotpeter, 1995; Lukas, Paulos, & Robinson, 2005)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종교성, 친사회성, 그리고 공격성에서 성차가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온 만큼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종교성, 친사회성, 공격성의 성차에 따른 차이를 검증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종교성이 친사회성의 증가와 공격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의 종교성과 친사회성, 공격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친사회성이 종교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아동의 종교성이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친사회성이 종교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경쟁모형을 비교 검증하였고, 전체 모형과 함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가 아동의 종교성과 심리적 변인들에 관한 사실상 첫 번째 국내 연구임을 감안하여 보다 탐색적으로 아동의 종교유무, 종교유형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세 곳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6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한 656명을 대상으로 연구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 결과 공격성 점수 표준편차 3이상의 이상치를 보인 21부를 제외한 총 631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11.19세($SD=.39$)였다. 연구 대상자의 종교의 유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아동이 57.2%(361명), 종교가 없는 아동이 42.6%(269명)이었다. 종교가 있는 아동 361명을 대상으로 종교유형을 살펴보면 개신교가 65.1%(235명)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가 19.4%(70명), 불교가 12.5%(45명), 기타 종교가 0.8%(3명), 무응답이 2.2%(8명)로 조사되었다.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종교성

아동의 종교성을 측정하기 위해 National Survey of Children(Gunnoe & Moore, 2002)에서 사용된 종교행동(종교기관에 참여하는 빈도)과 종교태도(종교의 중요성과 흥미)를 측정하는 도구를 이용했다. 종교행동은 ‘교회/성당/절에 얼마나 자주 가나요,’ 종교흥미는 ‘교회/성당/절에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나요 혹은 안 가본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성당/절에 가보면 얼마나 즐거울 것 같나요,’ 종교의 중요성은 ‘종교는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로 3개의 질문으로 측정했다. 종교행동은 5점 척도 (1=전혀 가지 않음, 5=일주일에 여러

번), 종교흥미와 중요성은 4점 척도(1= 전혀 즐겁지 않다/전혀 중요하지 않다, 4= 매우 즐겁다/매우 중요하다)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종교성은 이 3문항의 표준점수의 합산으로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종교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였다.

친사회성

친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 Eisenberg와 Mussen(1989)의 이타성 자기 보고를 배지은(2008)이 초등학생 고학년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아동용 친사회적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인 도움주기(예: 나는 다친 친구를 도와준다), 나누기(예: 나는 다른 친구가 나의 물건을 사용하려고 하면 빌려준다), 위안하기(예: 나는 친구가 울고 있거나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다가가서 달래준다), 협동하기(예: 나는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모둠활동을 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1= 전혀 아니다, 4= 확실히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사각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분석과 보다 객관적인 요인수의 확보를 위해 parallel 분석(Wood, Tataryn, & Gorsuch, 1996)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대상에는 단일요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세 개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전체 친사회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고, 꾸러미1, 2, 3 각각 모두 .70이었다.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arsee et al (2011)의 또래갈등척도를 한영경(2008)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4개의 차원인 반응적 관계적(예: 나를 화나게 한 아이를 내 집단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 반응적 외현적(예: 나에

게 잘못을 한 아이를 위협한다), 주도적 관계적(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아이를 나쁘게 보이도록 한다), 주도적 외현적(예: 나에게 아무 짓도 안 한 사람을 위협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 전혀 아니다, 4= 확실히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7 그리고 .76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먼저 SPSS 19 을 이용하여 주요 변인의 정규성을 검토한 후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성별과 종교유무, 종교유형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는 AMOS 18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와 Sheets(2002)의 two-step 접근으로 매개검증을 실시했는데, (a) 매개변인을 예측하는 독립변인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고, (b)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매개변인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여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매개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Jacard, Guilamo-Ramos, Johansson, & Buris, 2006). 최종모형의 매개효과가 갖는 유의확률을 검증하고자 Bootstrap 방법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하는 χ^2 의 값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가 .90 이상(Bentler, 1990)이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 결과 (남 N=314, 여 N=317)

| | 종교성 | 친사회성 | 꾸러미1 | 꾸러미2 | 꾸러미3 | 공격성 | 외현적 | 관계적 |
|------|-------|--------|--------|--------|--------|--------|-------|--------|
| 종교성 | 1 | .17** | .09 | .12* | .23** | -.04 | -.06 | -.01 |
| 친사회성 | .12* | 1 | .89** | .88** | .89** | -.16** | -.11 | -.16** |
| 꾸러미1 | .11* | .92** | 1 | .67** | .67** | -.14* | -.13* | -.12* |
| 꾸러미2 | .13* | .89** | .72** | 1 | .68** | -.14* | -.09 | -.14* |
| 꾸러미3 | .10 | .90** | .75** | .69** | 1 | -.13* | -.06 | -.15** |
| 공격성 | -.02 | -.31** | -.29** | -.32** | -.24** | 1 | .82** | .91** |
| 외현적 | -.02 | -.24** | -.23** | -.25** | -.18** | .92** | 1 | .51** |
| 내현적 | -.01 | -.33** | -.29** | -.33** | -.27** | .91** | .68** | 1 |
| 평균 | .00 | 2.97 | 2.86 | 3.03 | 3.01 | 1.15 | 1.15 | 1.16 |
| 표준편차 | 1.80 | .49 | .56 | .52 | .56 | .20 | .21 | .23 |
| 왜도 | .06 | -.31 | -.28 | -.24 | -.42 | 2.01 | 1.97 | 1.94 |
| 첨도 | -1.23 | .06 | -.17 | -.00 | .01 | 4.77 | 4.05 | 4.03 |

* $p < .05$, ** $p < .01$, 대각선 아래 남아, 대각선 위 여아, 종교성의 평균은 표준화 점수의 평균.

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상관분석 결과 남녀 모두 종교성은 친사회성(남 $r=.12$, $p<.05$, 여 $r=.17$,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친사회성은 공격성(남 $r=-.31$, $p<.01$, 여 $r=-.16$,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종교성과 공격성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유무 및 종교유형에 따른 차이

주요 변인의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종교성은 예상대로 종교가 있는 아동이 종교가 없는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27.37$, $p<.001$. 친사회성과 공격성은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종교성과 친사회성,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생의 종교성을 종교의 유무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종교의 유무가 아닌 종교행동, 종교흥미, 종교의 중요성과 같은 다차원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요 변인의 종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종교별로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종교성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2, 347)=48.58$, $p<.001$. 종교성을 측

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종교 활동($F(2, 347)=57.28, p<.001$)과 종교의 중요성($F(2, 347)=18.51, p<.001$) 모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종교흥미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F(2, 347)=12.91, p<.001$.

성별에 따른 차이

주요 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종교성($t=-1.99, p<.05$)과 친사회성($t=-3.83, p<.001$) 모두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았다. 공격성은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이 여아보다 높았고($t=-5.93, p<.001$),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는 없었다.

매개효과 검증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TLI는 .989, CFI는 .995, RMSEA는 .048(90% 신뢰구간=.008-.087)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측정변인에 관한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친사회성이 .82-.86($p<.001$), 공격성이 .72-.81($p<.001$)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종교성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갖는 동시에 두 변인의 관계를 친사회성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한 연구모형에 대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TLI는 .986, CFI는 .994, RMSEA는 .043(90% 신뢰구간=.012-.073)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종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설명력을 제외한 경쟁모형에 대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TLI는 .989, CFI는 .994, RMSEA는 .038(90% 신뢰구간=.000-.067)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검증 결과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간명한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했다($\Delta\chi^2(1, N=631)=.163, p<.10$).

최종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종교성에서 친사회성의 경로계수는 .16, 친사회성에서 공격성의 경로계수는 -.32으로 모두 .001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Sobel test를 통해 연구모형에 관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친사회성이 종교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z=-3.18, p<.01$). Bootstrap을 통한 종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간접효과는 -.05로 그 값이 유의도 .01 수준에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음을 지지했다.

남녀집단에서의 연구모형 적합도 비교

남녀아동의 종교성과 친사회성, 공격성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특정 경로에서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각 잠재변인에 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TLI는 .991, CFI는 .994, RMSEA는 .025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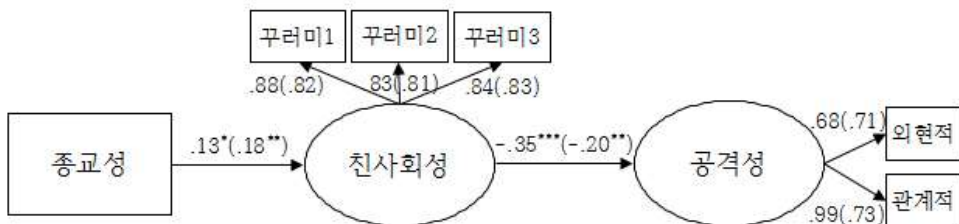


그림 3. 요인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에 가한 모형, 남아(괄호 속은 여아)의 표준화된 계수

타냈다. 또한 남녀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2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2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Delta\chi^2(2, N=631)=4.543$, $\Delta TLI=-.002$, $\Delta CFI=-.002$, $\Delta RMSEA=.002$) 이는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별에 따른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그림1) 종교성과 친사회성 간의 관계는 남아가 .13($p<.05$), 여아가 .18($p<.01$)로 남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친사회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는 남아가 -.35($p<.001$), 여아가 -.20($p<.01$)으로 남아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Delta\chi^2(1, N=631)=4.321$, $p<.05$)

논 의

본 연구는 공격성의 증가와 친사회성의 감소를 보이는 후기 아동기에 아동의 종교성이 적응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아동기의 종교성과 친사회성, 공격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실상 국내 첫 논문임을 감안하여 아동기의 종교 유무, 종교의 종류, 종교성의 측정영역에 따라 친사회성과 공격성의 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접근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변인간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교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예상대로 종교가 있는 아동의 종교성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친사회성과 공격성에서는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친사회성은 종교의 유무가 아닌 종교성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

었다. 이는 아동의 종교성과 친사회성,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종교성 수준을 종교의 유무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한다(Powell et al., 2003). 또한 종교유형에 따른 종교성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순으로 높았고, 친사회성과 공격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종교성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종교행동, 종교 태도 역시 모두 개신교 아동이 천주교나 불교 아동보다 더 높았다. 이는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가 규칙적인 종교기관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주일학교’와 같은 아동을 위한 정기적인 종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요 변인들 간의 성차를 살펴 본 결과 종교성과 친사회성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았고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고, 관계적 공격성은 성차가 없게 나타났는데, 모두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Lukas et al., 2005; Smith et al., 2003; 유연경, 유미숙, 2012).

종교성, 친사회성, 공격성과의 관계에서는 종교성과 친사회성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인, 친사회성과 공격성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성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정적 관련이 있고(Hardy & Carlo, 2005; King & Furrow, 2004),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 간에 부적 관련(Crick, 1996; Greitemeyer & Rudolph, 2003)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종교성과 공격성 간에는 부적 상관인 유의하지 않았는데 청소년의 종교성이 비행과 공격적인 행동과 부적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Yonker et al., 2012)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종교성과 공격성의 선행연구가 대부분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본 연구대상의

발달단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와 같은 후기 아동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손병덕(2009)과 Kim, McCullough와 Cicchetti(2009)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종교성은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와 아동의 종교성이 일반아동과 학대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Kim 등(2009)의 연구에서 아동의 종교 활동과 종교의 중요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없었고, 일반아동의 경우 아동의 종교성이 낮아도 부모의 종교성이 높은 경우 자녀의 외현화 문제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Kim과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 부모의 종교성과 자녀의 행동 문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Spoon, Longo, McCullough, 2012). 앞서 소개했던 손병덕(2009)의 연구에서 역시 아동의 종교행동이 내재화 행동문제와 직접적 연관은 없었으나 또래지지를 매개로 관련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기의 종교성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와 아직 직접적 관련성은 없으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아동기의 종교성과 더 직접적 관련이 있는 친사회성 혹은 부모, 또래지지 변인을 매개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아동의 종교성과 공격성은 직접적 관계 보다 친사회성을 매개로 간접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종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발달적인 해석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공격성이 측정된 맥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아동은 대부분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설문이 학교 교실에서 학교선생님의 입회하에 실시된 만큼 아동이 공격성에 답을 하는데 있어 실제보다 사회적 바람직성에 가까운 답을 하여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고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비록 종교성과 공격성의 직접적 관계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가정하지 않는 MacKinnon 등(2002)의 2단계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통해 아동의 종교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이 매개하는 모형을 확인하였다. 즉, 아동의 종교성은 친사회성을 통하여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종교성이 친사회성을 촉진시키고(Hardy & Carlo, 2005), 친사회적 행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Crick, 1996; Greitemeyer et al., 200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성차 분석 결과 종교성, 친사회성 그리고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의 남, 여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세 변인들의 관계의 강도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구체적으로, 종교성이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친사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에게 더 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아동을 위한 개입을 시도할 때 공격적 행동의 감소보다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Coie & Koepl, 1990) 종교성을 통한 친사회성의 증가는 특히 남아의 공격성 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발달 단계상 아동의 종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종교성의 다차원적인 구인 중 종교행동, 종교흥미와 종교중요성의 종교태도로 제한하여 측정하였고 문항 구성도 각 구인 당 하나의 척도만을 사용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아동기의 발달단계에 맞는 종교성 측정 도구 개발의 후속연구를 통해 아동기 종교성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가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아

동의 종교성과 공격성 그리고 친사회성과의 관계에 관한 횡단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세 변인과의 관계성과 아동의 종교성 발달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Sallquist, Eisenberg, French, Purwono와 Suryanti(2010)의 인도네시아 아동, 청소년의 종교성과 친사회성, 공격성 종단연구에 의하면 종교성은 6개월 혹은 1년 후의 친사회성의 증가와 공격성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과 공격성 간의 횡단적 관계에서 직접적 상관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본 연구에서 측정시기인 후기 아동기에는 종교성과 공격성이 관련이 없을 수 있으나 아동기의 종교성을 종단 추적하였을 때 초기 청소년기 및 청소년기의 공격성의 감소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연구가 미흡했던 아동의 종교성과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그동안 종교성 측정에 있어 제기되었던 방법론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아동의 종교성을 종교행동과 태도의 다차원적 구인으로 측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별히 본 연구는 아동의 종교성이 친사회성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을 밝혔는데 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고 친사회성이 낮아지는 후기 아동기에 종교성이 친사회성의 증진을 통해 공격성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배지은 (2008). 역할놀이 활동이 공감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미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아동학회, 32, 143-162.

서미정 (2012).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 및 고위험 변화집단 예측요인. 한국 아동복지학, 38, 157-186.

설경옥, 박지은, 박선영 (2012). 종교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메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617-642.

손병덕 (2009). 이혼, 재혼가정 아동의 공격, 위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로분석: 일반 가정 아동과 비교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14, 113-136.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 393-408.

유연경, 유미숙 (201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감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아동연구, 25, 17-32.

채유경 (2005). 지각된 부부 갈등, 폭력노출 경험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과 영적 안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지, 10, 151-17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학교폭력실태조사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하영희, Carolyn, P. E. (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친사회적 행동, 감정 이입,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25, 121-132.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Banks, R. (1980). Health and spiritual dimensions: Relationships and implications

- for professional preparation programs. *Journal of School Health*, 50, 195-202.
- Benson, P. L., Roehlkepartain, E. C., & Rude, S. P. (2003). Spiritual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oward a field of inquiry.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7, 206-213.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rgin, A. E. (1983).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evaluation and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170 - 184.
- Boyatzis, C. J. (2005). Religious and spiritual development in childhood. In R. F. Paloutzian & C. L. Park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pp. 123-14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oyatzis, C. J. & Janicki, D. (2003). Parent-child communication about religion: A survey and diary assessment of unilateral transmission and bi-directional reciprocit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4, 252-270.
- Broidy, L. M., Nagin, D. S., Tremblay, R. E., Brame, B., Dodge, K., Fergusson, D., et al.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A six-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9, 222-245.
- Coie, I. D., & Koepl, G. K. (1990). Adapting intervention research to the problems of aggressive and disruptive rejected childre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309-33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Nelson, D. A. (2002). Relational and physical victimization within friendships: Nobody told me there'd be friends like thes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599-607.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Eagly, A. (2009). The his and hers of prosocial behavior: An examination of the social psychology of gender. *American Psychologist*, 64, 644 - 658.
- Eisenberg, N., & Fabes, R. A.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779-862). New York: Wiley & Sons.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ew

-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kl, V. (1967).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Selected papers on logotherapy*. New York: Touchstone/Simon & Schuster.
- Greitemeyer, T., & Rudolph, U. (2003). Help giving and aggression from an attributable perspective: Why and when we help or retaliat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 1605-1611.
- Gunnoe, M. L., & Moore, K. A. (2002). Predictors of religiosity among youth aged 17-22: A longitudinal study of the national survey of childre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 613-622.
- Hardy, S. A., & Carlo, G. (2005). Religiosity and prosocial behaviors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role of prosocial valu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34*, 231-249.
- Hardy, S. A., Walker, L. J., Rackham, D. D., & Olson, J. A. (2012). Religiosity and adolescent empathy and agg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moral identity.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4*, 237-248.
- Jacard, J., Guilamo-Ramos, V., Johansson, M., & Buris, A. (2006).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5*, 456-479.
- Karriker-Jaffe, K. J., Foshee, V. A., Ennett, S. T., & Suchindran, C. (2008).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Sex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among youth in rural area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1227-1236.
- Kim, J., McCullough, M. E., & Cicchetti, D. (2009). Parents' and children's religiosity and child behavioral adjustment amo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 594-605.
- Kim-Spoon, J., Longo, G., & McCullough, M. E. (2012).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as a moderator for the influences of parents' religiousness on adolescents' religiousness and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 1576-1587.
- King, P. E., & Boyatzis, C. J. (2004). Exploring adolescent spiritual and religious development: Current and future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8*, 2-6.
- King, P. E., & Furrow, J. L. (2004). Religion as a resource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Religion, social capital, and moral outcomes. *Developmental Psychology, 40*, 703-713.
- Lane, J. F., Wellman, H. M., & Evans, E. M. (2012). Socio-cultural input facilitates children's developing understanding of extraordinary minds. *Child Development, 83*, 1007-1021.
- Lukas, A., Paulos, S. D.,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335-345.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 130-149.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tch.
- MacKinnon, D. P., Lockwood, C., Hoffman, J., West, S.,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 83-104.
- Marsee, M. A., Barry, C. T., Childs, K. K., Frick, P. J., Kimonis, E. R., Muñoz, L. C., et al. (2011). Assessing the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using self-report: Factor structure and invariance of the Peer Conflict Scale in youths. *Psychological Assessment, 23*, 792-804.
- Mattis, J. S., Jagers, R. J., Hatcher, C. A., Lawhon, G. D., Murphy, E. J. & Murray, T. F. (2000). Religiosity, volunteerism, and community involvement among African American men: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 391-406.
- McMahon, S. D., & Watts, R. J. (2002). Ethnic identity in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 411-432.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Simons-Morton, B., & Scheidt, P. (2001). Bullying behaviors among U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5*, 2094-2100.
- Nantel-Vivier, A., Kokko, K., Caprara, G. V., Pastorelli, C., Gerbino, M. G., Paciello, M., et al. (2009). Prosocial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multi-informant perspective with Canadian and Italian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 590-598.
- Owens, L., Slee, P., & Shute, R. (2000). 'It hurts a hell of a lot...'—The effects of indirect aggression on teenage girl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1*, 359-376.
- Powell, L. H., Shahabi, L., & Thoresen, C. E. (2003). Religion and spirituality: Linkages to physic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58*, 36-52.
- Regnerus, M. D., & Uecker, J. E. (2006). Finding faith, losing faith: The prevalence and context of religious transformations during adolescenc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7*, 217-237.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allquist, J., Eisenberg, N., French, D. C., Purwono, U., & Suryanti, T. A. (2010).

- Indonesian adolescents' spiritual and religious experiences and their longitudinal relations with socioemo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6*, 699-716.
- Seol, K. O., & Lee, R. M. (2012). The effects of religious socialization and religious identity on psychosocial functioning in Korean American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 371-380.
- Smith, T. B., McCullough, M. E., & Poll, J. (2003). Religiousness and depression: Evidence for a main effect and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29*, 614 - 636.
- Vaillancourt, T., Brendgen, M., Boivin, M., & Tremblay, R. E. (2003). A longitudina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indirect and physical aggression: Evidence of two factor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4*, 1628-1638.
- Wong, Y. J., Rew, L., & Slaikeu, K. D. (2006). A systematic review of recent research on adolescent religiosity/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Mental Health Nursing, 27*, 161-183.
- Wood, J. M., Tataryn, D. J., & Gorsuch, R. L. (1996). Effects of under- and overextraction on 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Psychological Methods, 1*, 354-365.
- Yonker, J. D., Schnabelrauch, C. A., DeHaan, L. G.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on psychological outcomes in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dolescence, 35*, 299-314.

1차 원고 접수: 2013.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3. 05. 26.

최종 게재 결정: 2013. 05. 29.

Prosocial Behavior as a Mediator between Religiosity, and Aggression in Late Childhood

Ji Eun Park Kyoung Ok Seol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has established consistent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outcomes; however, research on children's religiosity and psychosocial outcomes is scarce.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sity,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in late childhood ($n = 631$, M age = 11.19). We further analyzed gender differences in religiosity,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because gender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for understanding these three variables. Children's religios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social behavior, and prosocial behavio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ggression. However, children's religiosity was not correlated with their level of aggression. Prosocial behavior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religiosity and aggression. In other words, a higher level of religios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prosocial behavior. Prosocial behavior, in turn, was negatively related to aggression. When we performed a multi-group analysis of this structural model, we confirmed that the model of the prosocial behavior as a mediator between children's religiosity and aggression held true for both boys and girls. However, differences in the path coefficients for boys and girls indicat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was stronger among the boys.

Keywords religiosity, prosocial behavior, aggression, childhood, gender